

# 1963명 함께 만드는 대형비빔퍼포먼스

## 오송제 '전주물꼬리풀' 생육환경 개선 나서

### 전주시, 10월 3~6일 '전주비빔밥축제' 개최... 퍼포먼스 누구나 신청 가능

국가대표 미식축제인 '2024 전주비빔밥축제'에서 전주시민과 관광객 등 1963명이 함께 만드는 대형비빔밥을 맞출 수 있다.

전주시는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전주 UP, 비빔UP'을 주제로 한 전주비빔밥축제가 펼쳐진다고 23일 밝혔다.

'전주페스타 2024'의 시작과 함께 펼쳐지는 올해 전주비빔밥축제에서는 오는 5일 주말을 맞아 1963명이 참여하는 '1963 대형비빔퍼포먼스'가 가장 눈여겨 볼만하다.

이 행사에는 올해 철거가 예정돼 있어 전주의 근현대사로 추억될 전주종

환경기장의 준공년도인 1963년을 기념해 1963명이 참여하며, 시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 '한국기록원' 등재에 도전하기로 했다.

시민의 정성과 전주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전주종합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퍼포먼스에는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제 공식 누리집(www.bibimbabfestival.com)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비빔밥축제 사무국(063-282-59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올해 전주비빔밥축제에서는 △전주 음식의 역사를 보고 즐길 수 있는 '전주음식주제관' △40여 개

음식부스가 운영되는 5가지 테마의 전주음식테마존 △각종 공연 및 이벤트 등이 펼쳐져 오는 10월 한 달간 진행되는 '전주페스타 2024'의 포문을 열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 전주비빔밥축제는 1963 대형비빔퍼포먼스를 비롯해 전주의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맛과 멋이 어우러지는 오감만족 음식 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풍요로운 10월, 많은 분들이 친구·가족·직장 동료들과 함께 이 특별한 행사에 참여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2024 전주비빔밥축제' 포스터

### 전주시·국립생태원·전주시의회, 서식지 전수조사 실시

전주시가 국립생태원과 함께 손잡고 오송제에 서식 중인 전주물꼬리풀의 생육환경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시와 국립생태원, 전주시의회는 23일 전주물꼬리풀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송천동 오송제 서식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주물꼬리풀이 잘 생육할 수 있도록 서식지 주변에 대한 환경 정비를 실시했다.

시는 오송제 상류 전주물꼬리풀 식재지를 꾸준히 관리하고 생육환경을 개선해 내년에는 더욱 많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인 전주물꼬리풀은 습지 지역에 자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발아율이 10%에 불과하다. 1912년 일본 식물학자가 전주에서 발견해 세상에 알려졌으며, 이후 식물학자인 이창복 씨가 지난 1969년 전주의 지명을 본떠 '전주물꼬리풀'로 명명해 지금까지 불리고 있다.

시는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전주물꼬리풀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16년 5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3000본을 기증받아 오송제에 전주물꼬리풀을 식재했으며, 무더위로 인해 일부가 사멸해 지난 2022년 9월 500본을 보식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폭염)와 서식지 주변에 자생하는 여새와 부들 등으로 인해 전주물꼬리풀의 생육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시와 국립생태원은 지난 12일 오송제에서 '전주물꼬리풀' 서식 환경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전주물꼬리풀이 여새 및 잡풀 속에서도 곳곳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김성수 전주시 하천관리과장은 "오송제에 식재된 전주물꼬리풀이 꽃말인 '행운을 부른다'처럼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서식지 주변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수상자 3팀 선정

### 콜롬비아·코트디부아르·아제르바이잔 개인·단체... 25일 한벽문화관서 시상식 개최



우범기 전주시장은 23일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수상자들과 차담을 갖고 세계무형유산의 전승과 발전 방향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공모자들의 수상을 축하했다.

콜롬비아와 코트디부아르, 아제르바이잔에서 각각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는 데 앞장서 온 개인과 단체가 '2024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전주시는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국제 공모에 응모한 33개국 45개 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격 여부 심사와 심사위원회 심의, 후보자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피라-파라나강 원주민 전통협회(ACAIP) △코트디부아르의 남부 만데 코블레 재단 △아제르바이잔의 로야 타기예바 박사를 올해의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수상자로 선정했

다고 23일 밝혔다.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49명의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주시가 세계 각국에서 무형유산을 보호·발전시키는 데 앞장서 온 개인 또는 단체를 시상하기 위해 제정한 세계 유일의 국제무형유산상으로서, 올해로 6회를 맞았다.

올해 수상 단체 중 '유류파리 재규어 예술사'로 대표되는 콜롬비아의 피라-파라나강 원주민 전통협회(ACAIP)는 전통 지식을 문서화하고 젊은 세대와 함께하기 위한 자체 학습모델을 제작했으며, 신성한 장소

들을 보호하고자 환경 교육에 힘쓰는 등 전통 지식의 실용적 적용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코트디부아르 내 '단(DAN) 민족'의 무형유산을 보호·전승하는 단체인 남부 만데 코블레 재단은 지역 퍼레이드를 홍보하고 전통춤의 명맥을 이어가며 타민족과의 교류를 촉진해 무형유산이 일상의 관계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함을 입증했다. 나아가 이 단체는 과거 내전으로 단절된 전통을 회복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끝으로 아제르바이잔의 로야 타기예바는 카펫 문화로 대표되는 아제

르바이잔 직조문화를 보호·전승하며, 다른 나라의 직조문화와의 차별점을 알려 독특한 하나의 문화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현재 카펫 박물관을 운영하고 전시회를 개최해 세대를 아울러 무형유산을 소개하고 있으며, 전쟁으로 인한 실향민들에게 직조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수상자 선정은 6인의 무형유산 국제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무형유산 전승을 위한 지원자의 전문성, △무형유산 보호에 대한 지원자의 사회문화적 기여도, △무형유산 보호활동 과정에서의 지원자의 역할 등을 기준으로 심사에 결정했다.

이와 관련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수상자들과 차담을 갖고 세계무형유산의 전승과 발전 방향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공모자들의 수상을 축하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무형유산 전승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전주시는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을 통해 무형유산의 계승,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전문가들의 활동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시상식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전주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옷칠장 이의식 보유자가 제작한 상패와 함께 각각 1만 달러씩 총 3만 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김욱기 기자

## 전주덕진소방서, '완강기 사용법' 홍보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봉화)는 지난 8월 22일 부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것과 관련해 유사사고를 방지하고자,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전했다.



완강기 사용법 10 단계(가)를 통해 아파트 내 화재가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높은 층에서 지상까지 내려올 수 있는 파나기구조로, 주요 건축물 3층에서 10층까지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완강기'와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간이완강기'로 나뉜다.

사용 순서는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그기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줄을 아래로 바다 떨어뜨리기 △안전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고정

링을 가슴쪽으로 당기기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쭉 뻗어 벽면을 짚으면서 하강하기 순이다.

전주덕진소방서는 관계인의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10월 8일 숙박시설 관계인 소집교육을 추진한다.

한편, 화재안전조사, 현장방문행정 등을 통해 완강기 표본점검 및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전주덕진소방서 SNS와 전광판을 활용 사용방법 QR코드를 홍보할 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 전주 여의동 주민자치위, '제1회 여의동 생생나눔 큰잔치' 개최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은종수)는 지난 21일 여의동 조촌초등학교에서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여의동 생생나눔 큰잔치'를 개최했다.



올해 첫 행사를 맞이한 이날 행사에는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전주시의회 김학송·신유정 의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임원 등이 참석해 여의동 생생나눔 큰잔치를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의동 지역색소폰동호회 마하민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

여의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공연 △청소녀 장기자랑 △떡거리 장터 △경품추첨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마련돼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욱기 기자

www.kosca35.or.kr



회장 임근홍

### 도전과 개혁의 역사!

## '전문건설인'의 미래를 향한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묵묵히 건설현장을 지키며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그 역할을 다해온 전문건설인!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회원사의 권익신장과 업역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제12대 회장단·감사·운영위원

회 장	임 근 홍	(유)유림건설	박 찬 용	(유)성지도건	김 진 호	(유)대안건설
부 회 장	김 동 수	(유)도곡건설	유 흥 중	(주)누리토건	김 대 식	아래온(주)
감 사	이 선 한	(유)금정건설	강 훈 희	(유)대가건설	방 한 웅	(유)도암건설
운영위원	강 상 원	(유)반석	김 용 배	(주)천우에스엔씨	오 성 권	(유)세정건설
	김 만 성	(유)보성건설	안 길 환	(유)우정건설	임 완 택	(유)석금
	신 현 철	(유)서영건설	임 성 룡	(유)가인산업	전 성 배	(유)아일건설
	윤 현 철	(주)한성개발	장 철 성	(유)하늘채건설	홍 동 남	(유)정우건설
	임 찬 희	(유)모두건설	최 영 제	(유)성주건설		
	조 성 호	(주)일성건설				